

윤활소식

호남정유(주) “델로원” 고객설명회 개최

호남정유(주) (대표 : 허동수)는 지난 3월 15일 윤활유 신제품 “델로원”的 고객설명회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1월 12일 업계 최초 세계최고 성능등급인 API CG-4급 디젤엔진오일로 시판된 “델로원”的 이번 고객설명회는 약 1,000여명의 카센타, 세차장 경영자와 고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초청된 고객들은 “델로원”的 탁월한 성능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후 경품 추첨을 통해 행운을 안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 합성엔진오일 HAVOLINE, 그리이스 골든펄의 성능도 공개되었다.

한화에너지(주) 우완식 사장 취임

한화에너지(주)는 지난 3월 1일 우완식 사장이 취임하였으며 전임 박원배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중일화학(주)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중일화학(주) 아래와 같이 상호 및 대표자와 본사·공장의 주소지가 '95.4.1부터 변경되었다.

- 아 래 -

- 상 호 명 : (주)중일화성
- 대 표 자 : 조 현 범
- 우편번호 : 689-870
- 주 소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응촌면 고연리 288-3
- 전화번호 : (0522)60-9511
- F A X : (0522)60-9503

한국정제연료유재활용협회 사무실 이전

(사)한국정제연료유재활용협회(회장 : 최천행)은 '95.3.10(금)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우편번호 : 137-073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43-1
(일홍빌딩 301호)
- 전화번호 : (02)597-5144~6
- F A X : (02)597-7900

대한석유협회 제10대 회장 선임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월 28일(화)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우완식(한화에너지 대표 이사), 부회장에 홍찬기(민자당 중앙상무위원)를 각각 선임하였으며, 3월 2일(목) 협회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홍찬기 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대전 3·4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착공

–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자원재활용을 위한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이기성)은 지난 3월 30일 오전 11:00에 대전 제4공단(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소재)에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 4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대전 제4공단에 건설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정부로 부터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담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정부지원금 120억원을 포함한 총 995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대전 제4공단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규모는 15,000평 부지위에 발전용 보일러 140T/H 3기, 보조용 보일러 120T/H 2기, 터빈발전기

윤활소식

88,150KW,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소각로 200T/D 2기를 설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대전 제3·4공단 입주업체 및 인근업체, 향후 조성될 대전 과학단지, 송강택지 지구의 주택에 보급하게 되며, 대전 제3·4공단 전력수요의 약 66%를 공급할 수 있어 최근 냉방전력수요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될시에는 에너지이용시설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연간 120천 TOE(석유 환산톤)의 에너지 절감, 연간 2,290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근 세계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저렴한 양질의 에너지를 입주업체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은 기존의 발전소에 비해 에너지이용효율은 약 2배 이상이며 환경오염 배출물질도 수십개의 보일러에서 배출되던 것을 1개소에서 집중관리함으로써

황산화물 46%, 분진 95%를 감축할 수 있는 시설로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에 효과가 커 작년 3월에 발효된 「세계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 및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발전소 유치 반대 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다.

통상산업부는 그린라운드의 본격적인 출범과 에너지수입의존도 96%, 수입액 16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현실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에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을 공업단지에 1997년까지 20개소, 2001년까지 33개소에 도입코자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에너지관리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정부로 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며, 현재 공업단지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1972년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처음 도입된 이래 대구, 부산, 구미, 안산, 여천 등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쓰기전에 절약하고 쓰고난후 재활용

가뭄…
“우리 모두 물을 아껴씁시다”